



2025년 8월 한국 수출입동향



한국수입협회



수출 동향
(품목·지역별)



수입·무역수지
동향



정부
향후 정책



Q KOIMA

무역 동향 요약

수출 | 전년 동월 대비 1.3% 증가한 584.0억 달러
(역대 8월 중 최대치)

수입 | 전년 동월 대비 4.0% 감소한 518.9억 달러

무역수지 | 65.1억 달러 흑자 기록



품목별 수출 실적

흑자 품목

(15대 품목)

- # 반도체 **151.0억 달러 (+27.1%)**
메모리 가격 상승과 HBM·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확대,
IT 수요 호조와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사상 최고 실적 재경신

- # 자동차 **55.0억 달러 (+8.6%)**
순수전기차·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와 중고차 수출이 모두
호조를 보이며 3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

- # 선박 **31.4억 달러 (+11.8%)**
대형 컨선·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 인도로 6개월 연속
수출 증가세



품목별 수출 실적

흑자 품목

(15대 외 품목)

농수산물 **9.6억 달러 (+3.2%)**

K-콘텐츠 확산으로 한국 식품 관심 증가

화장품 **8.7억 달러 (+5.1%)**

한류 영향으로 K-뷰티 글로벌 수요 확대

전기기기 (8월 중 역대 1위 경신) **12.9억 달러 (+5.6%)**

글로벌 전력망 확충에 따른 변압기 수요 증가



품목별 수출 실적

적자 품목

석유제품 **41.7억 달러 (△4.7%)**

정유사 정기보수에 따른 물량 감소와 국제 유가·제품가 하락으로 수출 감소세 지속

석유화학 **33.8억 달러 (△18.7%)**

공급과잉과 저유가로 단가 하락세 이어지며 수출 감소

철강 **23.7억 달러 (△15.4%)**

미 관세 인상, 무역규제 강화·공급과잉으로 단가 하락, 수출 감소



품목별 수출 실적

적자 품목

- # 일반기계 **34.5억 달러 (△10.4%)**
미 관세와 건설경기 침체로 제조·건설기계 수요 둔화, 수출 감소
- # 이차전지 **4.9억 달러 (△31.3%)**
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핵심 광물가 하락으로 수출 감소
- # 바이오헬스 **11.3억 달러 (△11.7%)**
글로벌 관세 불확실성으로 유럽 등 주요시장 수요 둔화
- # 가전 **5.4억 달러 (△11.8%)**
미국 관세 조치와 경기 둔화·주택경기 침체 영향으로 대형가전 수요 감소

지역별 수출 실적



대중국

110.1억 달러 (△2.9%)

-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포화·에어컨 산업 수입 의존도 감소로 무선통신기기 (△10.2%), 일반기계(△17.0%) 등 전년 대비 감소
- 반도체 수출은 AI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호조세(+10.9%)를 보였음



대미국

87.4억 달러 (△12.0%)

- 데이터센터 분야의 반도체(+56.8%), 항공유 수요 확대에 의한 석유제품(+18.3%) 수출 증가
- 자동차(△3.5%), 자동차부품(△14.4%), 일반기계 수출이 부진해 전년 동기 대비 감소

지역별 수출 실적



대아세안

108.9억 달러 (+11.9%)

- 산업 제도 정비, 투자 확대로 반도체 (+47.0%)와 함께 선박(+359.9%) 수출 증가
- 현지 생산 확대와 수입선 다변화로 석유제품(△16.3%), 석유화학(△13.4%) 수출 부진

대EU

58.1억 달러 (△9.2%)

- 친환경차 중심의 경쟁력 강화로 자동차 (+78.9%) 수출 증가세 지속
- 건설 · 제조업의 수요 감소와 중국산 공급 과잉으로 철강(△24.6%) 수출 둔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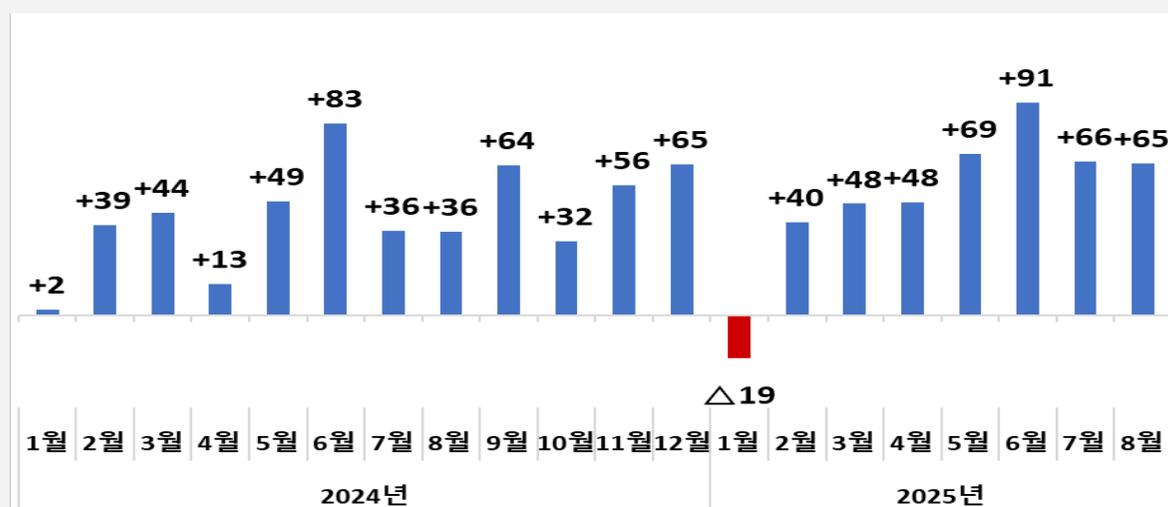
무역수지 동향

+65.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**29.3억 달러 증가**
 → 1~8월 누적 **+409.7억 달러 흑자**

역대 8월 중 최대 수출 실적(584억) 달성 및 3개월 연속 증가

15대 주력품목 중 3개 품목 수출 증가

9대 주요시장 중 아세안·CIS·중동 3개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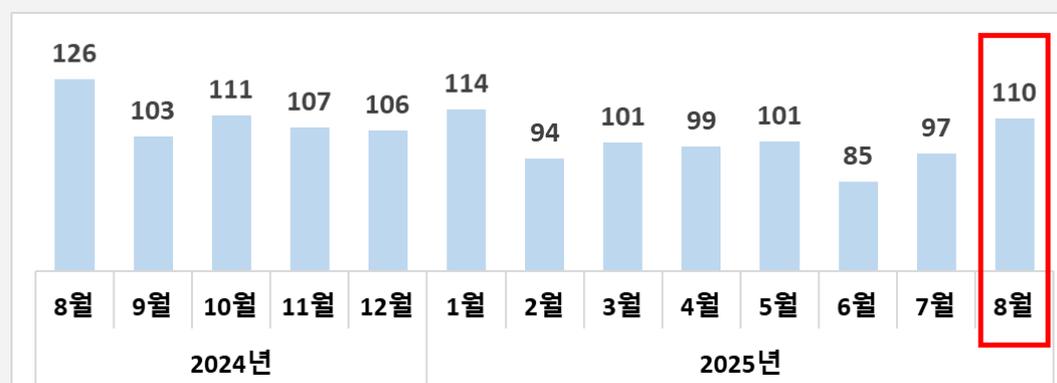
24.1월 이후 월별 수지(억 달러)

수입 동향

전년 동월 대비 $\Delta 4.0\%$ 감소한 518.9억 달러를 기록

에너지 수입

유가 하락 영향으로 원유($\Delta 16.6\%$), 석탄($\Delta 25.5\%$) 등 수입 감소하며 $\Delta 12.2\%$ 감소한 110.2억 달러



최근 에너지 수입 추이 (억 달러)

비에너지 수입

석유제품($\Delta 20.2\%$), 철강제품($\Delta 14.8\%$) 등의 수입 감소 영향으로 $\Delta 1.5\%$ 감소한 409억 달러



정부의 향후 정책

"정책 수요자가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"

정부는 크게 세 가지 축 중심의 지원대책을 9월 초 발표·추진할 계획!



단기 경영지원 및 내수 창출

→ 미 관세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·중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단기적 경영 지원책 마련



수출 모멘텀 유지 위한 시장 다변화

→ 특정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, EU·아세안 등 신흥 시장 진출 확대 지원



주력·유망 업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

→ 반도체, 자동차 등 주력 산업뿐 아니라 신성장 유망 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



8월 수출입동향 요약

단기적

- 6월부터 3개월 연속 월별 최대 수출 실적 경신
-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.3% 증가한 584.0억 달러, 수입은 4.0% 감소한 518.9억 달러
- 15대 주력 품목 외 농수산물, 화장품 등 역대 8월 중 최고 실적
- 9대 주요지역 중 3개 주요 시장(아세안·CIS·중동)으로 수출 증가

중장기적

- 석유제품,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·저유가 영향으로 지속 부진 가능성
- 아세안·CIS·대만 등 신흥시장 수출 비중 확대
- 미 관세정책 ·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산업 경쟁력 강화필요